

발 간 등 록 번 호

11-1342000-000942-01



유아놀이와 활동 자료

개정 누리과정에 기반한 유·보, 유·초 이음교육 지원 자료

유아의 시선으로 이어가는 놀이와 활동



“이음” 한눈에 보기

부딪힘

유아의 삶 연결하기 : 우리가 알려주는 유치원 생활

- 4세 유아가 3세 동생들에게 전하는 유치원 생활
- 유아의 연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이음 이야기



편안함

유아가 만들어가는 공간 :

편안함이 있는 교실, 우리가 만들어요!

- 낯선 유치원을 마주하는 3세 유아와 함께
만들어가는 편안한 공간
- 유아의 적응을 지원하는 이음 이야기





행복감

“굿바이, 유치원” : 유치원아, 고마웠어!

- 5세 유아가 유치원과의 헤어짐을 앞두고 되돌아보는 시간
- 유아가 유치원에서의 행복했던 시간을 회상해 보는 이름 이야기



기대감

유아가 기대하는 앞으로의 삶 :

궁금한 초등학교, 미리 만나봐요.

- 5세 유아가 초등학생에게 직접 묻는
궁금한 초등학교 생활
- 유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에 기대감을 갖도록
지원하는 이름 이야기

첫 번째 이음 이야기

유아가 만들어가는 공간 :
편안함이 있는 교실,
우리가 만들어요!

- 01 처음 마주한 유치원 : 유치원은 어떤 곳일까?
- 02 유치원과 친해지기 : 처음 오는 동생들을 위해 우리 유치원을 소개해요
- 이음 살펴보기 : "동생들아 환영해!"
- 03 새로운 공간에 편안함 더하기 : 편안함이 있는 교실, 우리가 만들어요
- 이음 살펴보기 : 함께 만들어요! 오고싶은 우리반
- 이음 살펴보기 : 편안함이 있는 환경 조성 사례



01

처음 마주한 유치원

“유치원은 어떤 곳일까?”



3세 유아에게 유치원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해마다 유아가 유치원에 입학하며 시작되는 유치원 적응은 3세 유아라면 한번쯤은 거쳐 가는 숙명적인 과정입니다. 그동안 익숙하게 지내왔던 울타리를 벗어나 선생님, 친구들, 교실환경과 분위기까지 유아들은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전과 달라진 외부환경 만큼이나 유아의 마음과 다양한 감정들도 소용돌이치기 마련입니다. 처음 만나는 곳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공간에 대한 궁금증, 보지 못했던 놀이

감에 대한 흥미로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족이 그리운 마음 등 유아는 수많은 감정들을 한꺼번에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많은 변화 속에서 유아는 유치원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들을 경험해 갈 것입니다. **유아가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며 불안함 없이 유치원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이후 유치원 생활에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 처음 온 유아의 가정이나 눈앞에 보여지는 교실은 아마 흥미로운 요소들로 가득한 공간일 것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았던 익숙한 것들도 있을 것이고, 유치원에서 처음 보는 새로움도 있을 것입니다.

교사는 유아의 적응을 지원하고자 유치원이라는 새로운 공간에 호기심을 가져볼 수 있도록 유치원과 교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교실이 3세의 적응을 지원하는 공간이었나?**’라고 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 교사가 미리 준비해놓은 환경에 유아가 서둘러 적응하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유치원에 입학하여 낯선 교실환경에서 생활해야 될 유아들은 어떤 공간에서 보다 더 안정적이고 즐겁게 놀이하며 생활할 수 있을까요? 3세 유아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며, 유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봅니다. 그들의 생각이 놀이로 표현될 수 있도록 교실의 공간을 함께 구성해 봅니다. 조금은 어수선하고 정돈되지 않은 공간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유아가 새로운 기관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해보려고 합니다.



“유치원에 처음 오는 동생들을 위해
우리 유치원을 소개해요!”



유치원에 처음 오는 유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도 앞으로 내가 지낼 유치원을 보고 어떤 곳인지에 대한 궁금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로 입학하는 유아 보다 먼저 유치원을 다니고 있어 누구보다 유치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형님의 소개를 통해 유치원을 미리 살펴봅니다. 유치원에는 어떤 공간들이 있는지, 어떤 놀이를 할 수 있는지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 재원생이 만든 ‘유치원 생활 안내’ 영상을 보면서 유치원에 대한 친근감과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봅니다.**

처음 유치원에 오는 유아의 마음은 두근거리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유아가 유치원이라는 공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보면 어떨까요? 먼저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재원생의 소개를 통해 유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음 살펴보기 + 동생들아 환영해!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이 가득한 입학식 날, 유치원에 재원 중인 형님이 유치원에 처음 오는 동생들에게 우리 유치원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유치원의 곳곳을 소개하며 이곳은 어떤 곳인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곳인지, 어떤 놀이를 할 수 있는지 직접 영상을 통해 보여주면서 새로 오는 동생들에게 소개와 환영의 인사를 함께 건넵니다.

우리 유치원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새로 입학하는 유아들에게
우리 유치원에 대해 알려주면 어떨까요?”
“영상으로 보여주면 좀 더 생동감 있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입학식 첫날 유아들에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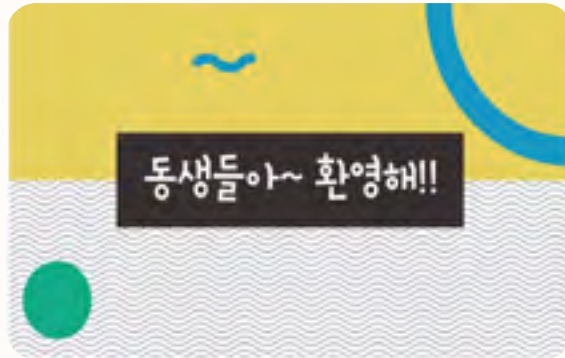


“그런데 교사가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치원에 먼저 다니고 있었던
형님들이 소개해주는 건 어때요?”
“우리가 먼저 다니고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미리 경험해본 것들을
알려주는 형식이면 좋을 것 같아요.”



🍎 우리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의 공간과 놀이 등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입학식 날, 처음 유치원에 오는 유아들에게 공유해주기로 하였습니다.



🍎 동생들에게 알려주려면?

“동생들은 유치원에 처음 오는 거니까
우리 유치원에 대해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유치원에 어떤 곳들이 있는지 알려줘요!”
“모래 놀이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책도 엄청 많잖아요!”
“아! 재미있는 놀이도 할 수 있다고 소개해 줘요.”

“그런데.. 동생들이 아직 유치원에 와 본적이 없으니까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주는 건 어때요?”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면 동생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 동생들에게 알려주어요

○○ : ○ ○ 유치원에는 재미있는게
아~주 많아.

얼마나 재미있는지 들어볼래?

○○ : 여기는 모래 놀이하는 곳이야.



○○ :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며)

여기는 도서관이야.

그림책이 아주 많아.

○○ : 이건 과녁 맞히기 게임이야.

○○ : 집게를 날려서 하는 게임이야.

○○ : (집게를 과녁에 날리며) 하나, 둘, 셋!



○○ : 이렇게 종이나 박스로 집을 만들어서
인형 놀이를 할 수도 있어.



○○: 여기는 재미난 것들을

많이 하는 곳이야.

이런 것들로 만들 수도 있어.

○○: ○○유치원 친구들아 잘 봤니?

○○: 우리 ○○유치원에서 또 만나자.



현재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형님의 소개를 통해 3세 유아는 유치원에 대해 가고 싶은 곳, 재미있는 곳, 새로운 것들이 가득한 곳이라는 설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치원은 즐겁고 편안하며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아들이 유치원에 적응해 가는 수많은 과정 중 가장 먼저 유치원에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는 첫 발자국을 조금 쉽게 내딛을 수 있을 것입니다.



03

새로운 공간에 편안함 더하기

“편안함이 있는 교실, 우리가 만들어요”



유치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유아는 물리적 교실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새롭게 적응해나갑니다. 주변 상황이나 개인 특성에 따라 더 많은 불안함과 혼란을 겪게 되는 학기 초에는 공간이 주는 이미지와 분위기가 유아의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해야한다고 이야기하듯 유치원의 환경은 유아에게 편안함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편안한 공간 조성을 통해 얻는 심리적인 안정감은 이후 유아가 교실의 구성원이자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낮선 공간에서 겪는 유아의 심리적 불안감을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교사는 3월의 유치원 공간을 미리 준비하려고만 하였으나 유아의 의견을 들어보고 함께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 이음 살펴보기 + 함께 만들어요! 오고 싶은 우리 반

평범했던 공간이 새로운 놀이 공간으로 변합니다. 새로운 놀이 공간으로의 탈바꿈은 등원과 적응을 어려워하는 유아가 유치원을 기대하게 하고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만듭니다. 공간이 곧 유아에게 놀잇감이 되는 순간입니다. 잘 만들어져있는 교구보다 교사리 손으로 직접 만든 놀잇감이 더 소중한듯, 교실이라는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의 입장에서 반 친구들과 함께 만드는 공간은 유아에게 보다 큰 편안함과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 교사의 고민

이 교사의 저널

유난히도 울음이 많은 올해 우리 반. 다년간 3세 담임을 하면서 적응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순간일 뿐이라고 생각해왔었는데, 한 달의 끝자락이 된 지금. 아직도 교실 안으로 들어오기 어려워하는 유아들이 있다. 유치원 규모가 커서 학교같이 거대해 보이는 탓일까? 그저 유아들의 기질 때문일까?

...(중략)...

평소 유아들이 좋아하는 공간을 교실 속에 만들어보면 유아들의 불안하고
긴장되었던 마음이 안정될 것 같기도 하다. 유아들의 흥미를 반영해
서 교실을 다시 재구성해 봐도 좋을 것 같은데 ... (중략)...

어쩌면 유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는 않을까? 유아들에게
물어보자!



우리반을 오고 싶은 반으로 변신시키려면?



우리 반에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슬프고 속상한 마음 없이 유치원에 오고 싶어질까요?

혜원: 나는 놀이터에서 노는게
제일 좋아서 우리 반에도
놀이터가 있으면 좋겠어요.

재이: 놀이터에는 시소도 있어야하고
그네도 있어야 해요.

유나: 징검다리도 만들어요!

현우: 미끄럼틀도 있어야하는데.



놀이터?!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 하나씩 같이 만들어볼까요? 먼저 너희들이 좋아하는 징검다리를
함께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을: 책상이랑 의자를 옮기자!

도희: 내가 도와줄게 같이 옮겨.

이슬: 나는 의자로 징검다리를
놓아줄거야!



현우: 여기 블록으로 출발선을
만들거야.

지민: 블록 내가 더 가져올게.
같이 만들자.



🍷 우리가 직접 만들어보자!

원우: 우와 우리 반에도 미끄럼틀이 생겼어!

지민: 여기 징검다리를 건너서 가자고 하자.

현우: 우와 진짜 신나는 놀이터가 되었네!!



나은: 테이프로 선을 그려줘야겠어요.
놀다가 부딪히면 아프기도 하고
기분이 안 좋아지니까 여기에서
기다리면 좋겠어요.





그네는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여기는 천장이 낮아서 정말 우리가 그네를 달아서 타고 놀면 천장이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지아 : 그럼 우리 대신 인형을
태워주면 되잖아요!

유정 : 우리 엄마랑 아빠가 그네를
밀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네 태워줄래요.

슬기 : 우리 꼭 엄마 아빠 같다.
내가 엄마 해줄게. 아가야!



다운 : 나는 엄마랑 시소타는게 좋아서
여기에 시소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세워지네.
집에서 엄마랑 생각해봐야겠어!



지운 : 여기는 쉴 수 있는 터널이에요.
깜깜해서 졸릴 때 들어가서 잘 수도 있어요.
유나 : 여기는 그럼 속상할 때 쉬는 곳이라고 하자.
미진 : 여기에 장난감을 놓자. 기분이 안 좋을 때
가지고 놀라고 해주자.
그럼 기분이 괜찮아질거야.
현우 : 그냥 기어다녀도 재밌겠어!



유아의 시선에서 바라본 공간은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책상이 미끄럼틀로 사용되기도 하고, 숨어있던 공간이 놀이 공간으로 쓰여지기도 하며, 우리 반 곳곳의 공간이 유아의 공간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유아가 재구성한 공간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움과 편안함,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유아의 또 다른 놀이 공간이 되었습니다.

+ 이음 살펴보기 + 적응을 지원하는 공간 조성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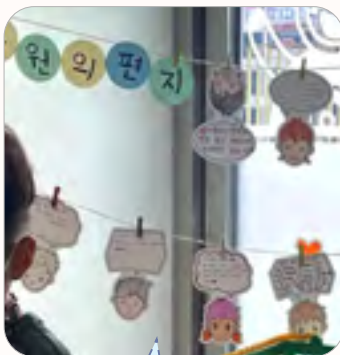
유아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공간 조성 사례를 소개합니다. 유아가 주도적으로 공간을 구성하거나 교사가 사전에 준비하여 적응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사진을 벽에 걸어 놓아요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을 때마다
사진을 보며 용기를 내요.



인형 같은 애착물을
담아 놓아요.



엄마 아빠의
응원 편지를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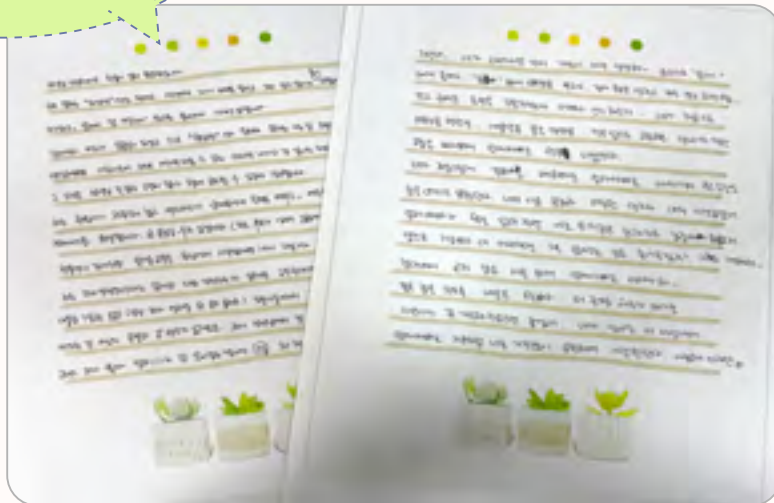


달라지는 교실에서
형님과 함께 놀이해요.

휴식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휴식영역에서
시간을 보내요.



학기 초 보호자분들에게
유아의 성장배경, 성향,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 등이 담긴
자필 편지를 받으면, 유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음 이야기

유아의 삶 연결하기 : 우리가 알려주는 유치원 생활

01 연속적인 성장을 위한 이음

- 너와 나의 연결고리, 우리의 이음고리

02 유아가 여는 오리엔테이션

- 우리가 알려주는 여섯 살의 유치원 생활
- 이음 살펴보기 : 진정한 여섯 살의 모습은?
- 이음 살펴보기 : 새로운 여섯 살에게 전해줄 나만의 비법



01

연속적인 성장을 위한 이음

너와 나의 연결고리, 우리의 이음고리



이음교육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흔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치원과 초등학교라는 기관 간의 연계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음의 관점을 조금 확장해 본다면 기관 사이를 연결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유아의 모든 성장의 순간을 연속성 있게 이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성장의 순간들을 연속성 있게 이어

주기 위해 교사는 무엇을 지원해 주어야 할까요?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 유치원에서는 유아의 연속적인 경험과 성장·발달, 안정적인 유치원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합니다. 유아가 다니게 될 유치원, 교실 등 새로운 환경을 살펴보고 기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들을 학부모와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새학기를 마주하는 유아가 계속 안정감 있게 성장하고 즐거운 유치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동안의 유치원 오리엔테이션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소중한 첫 만남을 유아가 학부모와의 만남으로만 여기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유아를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존재로 바라보고자 했지만, 과연 얼마나 실천하고 있었을까요? 이제 시선을 옮겨 이름의 주체로서 유아를 중심에 두고 첫 시작인 오리엔테이션의 방향을 전환해 보고자 했습니다. 유아의 관점에서 유치원 생활에 대해 알려주는 시간을 통해 유아의 경험과 삶을 공유하며 성장의 과정을 연결해봅니다.

새로운 기관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은 3세 유아에게 자신들이 경험한 유치원 생활을 소개하는 유아중심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마련해보았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4세 유아들은 스스로 자신의 성장한 모습을 돌아보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아가 만들어가는 오리엔테이션은 유아들의 유능성이 또 다른 유아에게 이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02

유아가 여는 오리엔테이션

“우리가 알려주는 유치원 생활”



이제 곧 형님이 된다고 말하는 4세 유아들은 새로운 학급에서의 놀이와 생활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처음이었던 4세의 3월에도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유치원에서 한 살이 많아진다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계와 환경을 만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유아의 새 출발을 의미있게 지원할 수 있을까요? 어른의 시각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닌 유아의 시선을 담아봅니다. 나의 한 해를 돌아보며 새로운 4세가 될 동생들을 위해 형님이 알려주고 싶은 것을 떠올려봅니다. 내가 잘 할 수 있게 된 것, 달라지는 환경에서 알아두어야 할 것, 여섯 살*의 추억 등 전하고 싶은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유아가 직접 전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며 3세 유아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낯설음을 덜어주고, 4세 유아들에게는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유능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4세가 정확한 표현이지만 자연스러운 유아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 여섯 살이라고 표기하였습니다.

+ 이음 살펴보기 + 진정한 여섯 살의 모습은?

생각의 타임머신을 타고 처음 여섯 살이 되어 우리 반에 왔던 날로 돌아가 봅
니다. 처음 우리 반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가장 새로웠던 것은 무엇이
었는지, 이제 막 여섯 살이 되었을 때를 떠올려보며 그때와 비교하여 달라진 여섯
살의 모습과 마음을 다시 회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 3월의 우리를 기억하니?

지후: 선생님, 3월에는 이만큼만 키가

컸었는데 이제 더 커졌어요!

원형: 나도 재볼래~~

오, 나도 엄청 키가 커졌어!

찬일: 이제 우리 일곱 살 되잖아~



교실 한켠에 표시해 두었던 3월의 키,
유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이 ‘성장’ 했음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다.
1년 동안 우리 반은 얼마만큼 성장했을까?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다.

🍄 우리가 생각했던 여섯 살의 모습



우리가 3월에 함께 만들었던 책을 살펴볼까요?

너희들이 생각했던 진정한 여섯 살의 모습이 기억나나요?



예린 : 나는 밥 앉아서 먹는 거였어!

지호 : 저것 봐! 내 그림이다!! 티라노사우루스 안 무서워한다고 했었네.

도원 : 문 닫는것도 있어.

지웅 : 맞아, 그리고 나는 진짜 힘이 세졌어. 달리기 진짜 많이 했거든.

유하 : 친구한테 같이 놀자고 해야 해. 나 이제 다운이랑 연서랑 삼총사되었다.

🍄 다시 생각해 보는 진정한 여섯 살의 모습

여섯 살의 끝자락, 1년이 지난 지금 유아의 생각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우리의 1년을 돌아보며, 진정한 여섯 살의 모습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봅니다. 그러면서 한층 더 성장한 나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 그림책을 만들었을 때와 지금은 어떤 것이 달라졌나요?
우리가 다시 이 그림책을 만든다면 어떤 내용을 넣어보면 좋을까요?

도윤: 옛날에 그린 거랑 다른 거 그릴래요.

이제 형님이니까 형님 모습을 그려야겠어요.

연서: 나는 이제 글씨도 쓸 수 있으니까 글씨로도 써야지.

유이: 옛날보다 이제 블록도 높이 쌓을 수 있고

예준: 나는 이제 옷도 혼자 정리해요.





+ 이음 살펴보기 +

내가 알려주고 싶은 여섯 살의 이야기

새로운 여섯 살이 되는 동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을까요? 의미 있는 만남의 과정을 통해 유아의 행복과 성장을 보다 더 가까이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동생들에게 손수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이음을 통해 한 뼘 더 성장해가는 유아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인이 아닌 유아의 시선에서 바라본 이야기이기에 더 와닿는 듯합니다.

유아의 성장을 떠올리며...



“요즘 우리 반 유아들은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달력을 보며 한 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엄청 기대하더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컸는지 키도 비교해 보고,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자랑하기도 해요.”

“우리 반 유아들도요. 형님이 된다면서 좋아하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반 유아들이 여섯 살이 되어서도 씩씩하게,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해요. 유아들이 여섯 살이 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은 가지고 있지만,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도 하니까 걱정하는 유아들도 있더라고요.”



“다섯 살 동생들에게 우리반 유아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여섯 살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주면 어떨까요?”

🍁 어떤 것들을 알려주고 싶나요?



“여섯 살이 되는 동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나요?”
“동생들은 어떤 것들을
궁금해할까요?”



유이: 엄마가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 지 알려줘요.

어진: 물통에 물을 담으려면 어디서 담는지 알려주고 싶어요.

유하: 친구랑 잘 지내는 방법이에요!

다운: 먹기 싫은 반찬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는지...

찬웅, 다을: 우리는 신발을 어디에 정리해야하는지 알려주고 싶어요.

원형: 선생님! 우리가 알려주러 가는건 어때요?

저 나무반에 동생 있어서 가서 알려줄래요.



친구랑 싸우거나 화가 나면
서로 미안해라고 사과하면 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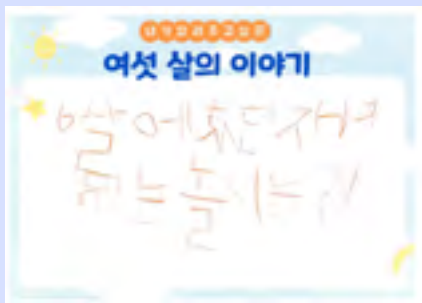
좋아하지 않는 채소가 나왔을 때는
맛있는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돼요.



계단을 올라갈 때는 손잡이를 잡고
한칸씩 올라가야 해요.



여섯 살이 되면 키가 더 커지고
더 빨리 달릴 수도 있어요.



여섯 살 때 가장 재미있었던 놀이를
소개해주고 싶어요.



엄마가 보고 싶을 때는 친구랑
신나게 놀면서 기다리면 돼요.

🍷 동생에게 들려주는 여섯 살의 이야기



유아들의 그림을 살펴보니 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생생한 이야기들이 담겨있네요. 학년이 바뀌면서 달라지는 것들과 할 수 있는 일 등 자신들만의 방식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집니다.

와~ 그림만 봐도 우리반 유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준 : 우리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고 싶어요.

도윤 : 1명씩 돌아가면서 이야기해 주면 되겠다.

예린 :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동생들을 우리 반에 초대하는 건 어때요?

유하 : 우리가 우리 반을 소개도 해주고, 같이 놀면서 더 알려주면 되겠다!

나는 그림책도 읽어줄래.

어진 : 나무2반(3세반)한테 이야기해주고 나서 나무 1반도 다녀올래요!



다음 : 여섯 살 신발장은 여기야.

나무반 신발장에서 문을 하나

지나가야 있어.

찬웅 : 신발장에 신발을 정리하고서 옆에 있는

계단을 따라오면 바다반이 나와!



어진 : 바다2반 정수기는 여기 책상이랑
의자를 지나서 이쪽으로 가면 되는거야.
너희가 물을 다 마시고 나면
여기서 물을 뜨면 돼.



지호 : 애들아! 여섯 살이되면 친구들이 더 많아지는데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놀이하려면
장난감도 나눠줘야하고
같이 놀자고 이야기도 해야해!

도윤 : 여기는 우리 반에 있는 쌀기영역인데
블록으로 놀이하는 곳이야.
너희 반에 없는 블록도 많지? 여기서는 구슬 길을
만드는 장난감이 제일 인기가 많은데,
여섯 살이 되면 너희도 할 수 있어!



찬일 : 잘 봐~ 여기에 옷을 이렇게 펴서 옷걸이를
가운데에다가 놓고 여기 구멍에 넣으면 되는거야.
그리고 나서 가방장에 있는 자기 이름
밑에다가 옷을 거는거야!



서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4세 유아는 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더욱 주도적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3세는 다음 학년으로의 변화를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이러한 시간은 서로의 관계를 존중으로 이어주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가 이어지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세 번째 이음 이야기

“굿바이, 유치원” : 유치원아, 고마웠어!

- 01 유치원에서 보냈던 우리들의 시간
- 유치원을 떠나며 회상해 보는 추억들
- 02 유아가 생각하는 이별의 의미 : 유아에게 이별이란?
- 이음 살펴보기 : 헤어짐에 대한 생각나누기
- 03 헤어짐을 마주하는 자세 : 유치원과 인사나누기
- 이음 살펴보기 : 유치원아, 고마웠어!



01

유치원에서 보냈던 우리들의 시간

“유치원을 떠나며 회상해 보는 추억들”



3년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5세 유아들에게 유치원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유아는 하루일과의 대부분을 친구와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하며 보냅니다. 교실은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는 장소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도 크지만, 유아가 자신

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표현하고 즐기는 놀이공간으로, 다른 사람과 생각을 나누는 소통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유치원은 유아들이 사회생활의 첫발을 내딛는 경험을 하게 되는 곳입니다. 정해진 규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소속감과 또래 친구라는 존재를 통해 함께한다는 것의 즐거움과 행복한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유아들은 유치원 공간의 매일 매일의 시간 속에서 새로운 경험과 끊임없는 시도, 도전을 통해 성취감을 맛보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과 쓰라린 실패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유치원에서 유아들은 몸도 마음도 성장해 나갑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3년의 시간을 보낸 유치원을 떠나는 유아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앞둔 상황에서 설레임과 함 헤어짐이라는 아쉬움 등 복합적인 감정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유치원에서 지냈던 시간들을 떠올려 보면 함께 했던 선생님과 친구들, 협력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던 다양한 놀이, 웃음으로 가득했던 교실, 뛰어놀기만 해도 좋았던 옥상과 놀이터 등 유치원의 곳곳을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유치원과 잘 헤어질 수 있는 우리들만의 방법으로 인사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유아들은 유치원과 인사를 나누는 과정을 바탕으로 앞으로 마주할 새로운 시작과 만남에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들었던 유치원과 헤어지며 인사를 나누는 경험은 유아들에게 낯설고 생소한 경험일지도 모릅니다. 유치원에서의 시간들을 추억해보는 경험은 유아들에게 행복했던 순간들을 회상해 보는 의미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헤어짐이 있으면 또 다른 만남이 있는 것처럼 초등학교라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02

유아가 생각하는 이별의 의미

“유아에게 이별이란?”



흔히 이별이라는 단어와 상황을 떠올려보면 슬픈 감정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정들었던 곳이나, 마음을 나누었던 사람이나, 때로는 아끼던 무엇과 이별의 순간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유아들도 많은 시간을 보낸 유치원을 떠나게 되면서 떠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별의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유아들에게 이별이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유아들은 이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까요?

유치원과 헤어짐을 앞둔 유아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이별, 헤어짐은 무엇일까요?에 대해 생각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별이라는 낯선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는 시간을 통해 유아만의 이별에 대한 정의를 내려 보며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아쉽지만 유치원과 따뜻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음 살펴보기 + 헤어짐에 대한 생각 나누기

유아들에게 헤어짐이란?

유아들의 시선에서 헤어짐과 이별에 대해 바라보고 내가 마주했던 이별의 경험을 함께 공유해 봅니다.



“이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별, 헤어짐이란 어떤 뜻일 것 같아요?”

나연: 떨어진다는 이야기에요. 단짝 친구들이랑 떨어지고

다른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윤하: 친구들이랑 지냈는데 그 친구들이랑 다른 반이 된다는 거예요.

지환: 저 어저께 밤에 삼촌을 만났는데 바로 보고 그냥 갔어요.

그것도 헤어지는 거예요.

윤진: 친구를 만났을 때 시간이 없어서 친구가 바로 갔을 때?

라인: 슬프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연서: 눈물이 나면서 안녕~ 이라고 인사할 때도 이별 같아요.

유아들과 이별, 헤어짐에 대한 의미를 떠올려 보고 생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유아들이 생각하는 이별, 헤어짐이란 누군가와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
 고 난 후 떨어지는 것, 오랜만에 만났던 사람들과 또 다시 안
 념이라는 인사를 나누는 것, 눈물이 나면서 슬프게 나누
 는 인사와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유아들에게
 도 이별은 슬픔과 아쉬움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상황
 으로 다가오는 듯했습니다.



🍷 헤어짐의 경험 나누기



“너희들도 헤어짐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하준 : 유치원에서 친구들이랑 헤어져서 슬펐어요.

예나 : 오빠가 이사 가서 헤어졌어요.

지아 : 어제 언니랑 일요일에 인라인 타러 갔다가
 놀이터에서 집에 가는 시간이 되어서 헤어졌어요.

윤진 : 나는 할아버지랑 강아지랑 재밌게 놀았었는데,
 돌아가셔서 이제 못 만나요.

나연 : 친척 중에 오빠가 있는데 미국으로 가서
 만나기 어려워졌어요.

연재 : 우리 집이 이사 가서 아끼는 인형들을 놓고 왔는데 이제 만날 수 없어요.

예나 : 할머니 집에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두 마리가 죽었어요.
 그때 엄청 슬펐어요.



“헤어졌을 때 너희들의 마음은 어땠나요?”

민서: 이미 지난 일이니까 괜찮아요.

하준: 시간이 지나면 까먹으니까 괜찮아요.

연재: 새로운 장난감들이 생기면 괜찮아지기도 해요.

지한: 원래 슬픈 일은 잊어버리게 되니까요.

윤하: 다시 즐거운 일이 찾아오니깐 헤어져도 조금만 슬퍼요.

유아들은 친했던 친구와 다른 반이 되었을 때,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더 이상 만나지 못하는 일, 이사 가면서 아끼는 인형을 두고 와 보지 못하는 것, 키우던 강아지나 물고기가 죽었을 때 등 생각보다 다양하고 많은 부분에서 이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유아들에게 헤어진다는 것은 슬프고 속상한 것으로 느껴지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되고, 또 다른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면서 괜찮아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아들에게 이별은 새로운 변화가 찾아오게 되면서 차차 자연스럽게 무뎌지게 되면서 되돌아보았을 때 소중한 추억으로 남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03

헤어짐을 마주하는 자세

“유치원과 작별 인사하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만큼 유치원과 잘 헤어지는 것도 새로운 환경을 만나야 할 유아들에게 필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유치원과 이별하는 과정은 슬픈 것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내가 있었던 공간과 시간, 그 안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며 유치원과 행복한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유치원과 잘 헤어지는 방법 중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지냈던 유치원의 모습과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회상해 보고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 이음 살펴보기 + 유치원아, 고마웠어!

유치원에서의 시간 떠올려보기

유아들에게 “내가 지냈던 유치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을 통해 유치원에서 지냈던 우리들의 시간을 떠올려 봅시다.



“유아들은 유치원에서 지냈던 많은 시간들 동안 어떤 것들이 기억 속에 남았을까?”

⋮

“유치원에서 지내면서 언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민규: 나는 처음 유치원에 왔을 때 엄마랑 할머니랑 같이 교실에 들어갔었는데
그게 떠올라요.

윤진: 다른 유치원에 다니다가 왔는데 유치원이 궁금하고
어떤 친구들이랑 같이 놀지가 제일 궁금했어요.

은수: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신났어요. 친구들과 같이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연서: 나는 다섯 살 때 윤하랑 같은 반이었는데 친구들이랑
엄마, 아빠 놀이를 했던 게 생각나요.

지아: 저는 친구랑 처음으로 책 읽었던 시간이 기억나요.

하준: 유치원에는 재미있는 놀이가 많아서 놀이 시간이 생각나요.

예나: 나는 놀이 시간에 찾길을 만들었던 놀이가 생각나는데 진짜 재미있었어요.

하준: 아 동생들이랑 강당에서 같이 강강술래했던 게 생각나요.

지한: 딸기 체험 갔었던 거?

민서: 아! ○ ○ 라디오! 밥 먹을 때 즐겁게 먹으려고

DJ가 노래 틀어주잖아요.

🍷 우리가 기억하는 유치원에서의 시간들 그려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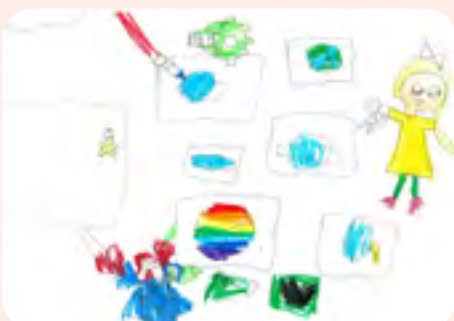
“유치원에서 지내는 시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을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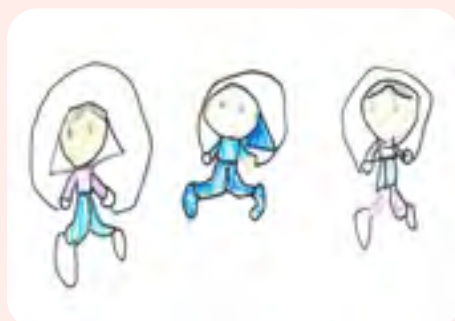
직접 만든 비행기 날리기 시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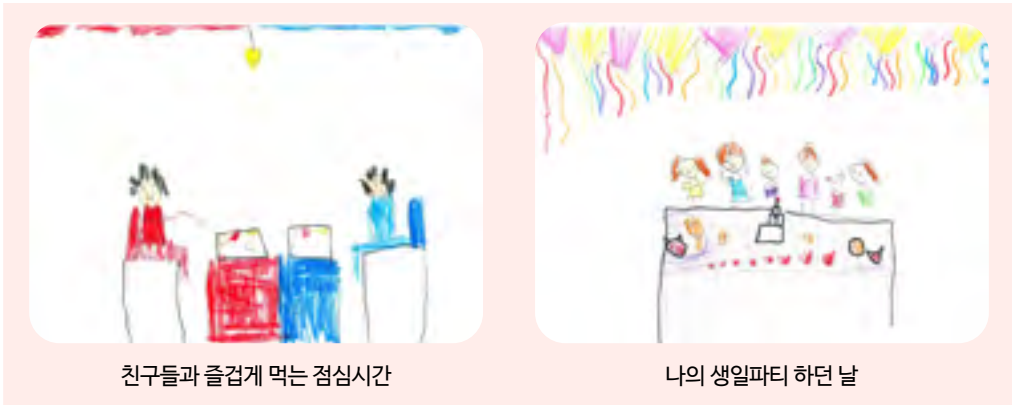
친구와 함께 했던 자동차 놀이



우주놀이 공간에서 친구들과 놀기



체육시간에 처음 줄넘기 넘었던 날



친구들과 즐겁게 먹는 점심시간

나의 생일파티 하던 날

기억에 남는 순간을 이야기 할 때마다 유아들은 ‘재미있었다, 즐거웠다, 행복했다.’라는 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였습니다. 유아들의 기억에 남았던 순간들은 교실에서의 놀이시간, 점심시간, 생일파티, 원 행사, ○○라디오 등 대부분 친구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유아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듯 하였습니다.

🍷 우리 반의 베스트 10 뽑아보기

유치원과 잘 헤어지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 반에서 지내면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우리 반에서 지내는 동안 유아들의 기억 속에 남았던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했던 추억들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반에서 함께 지내는 시간동안 기억에 남았던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진을 보면서 어떤 시간이 있었나 살펴볼까요?

지환: 어! 휴머노이드 만났을 때다.

민서: 하늘이 만났을 때야~ 보고싶다 하늘이.

주원: 체육 시간에 모두 공룡 옷 입었을 때.

지환: 어린이날예요. 에어바운스 타고 공연도 보고 그랬잖아요.

예나: 재미있었는데 어린이날.

민규: 에어바운스 진짜 재미있었어~

은수: 모네 정원 갔을 때 다 우리 여기서 꿀꿀이했잖아요.

예은: 모래 놀이도 했었지!!

은수: 그 날 우리 달팽이도 만났었잖아.



윤하: 매실도 따가지고 우리 관찰놀이에서 봤었잖아요.

세아: 숲 체험 갔을 때예요.

민규: 여기서 나무에 있는 곤충도 잡았잖아!

주원: 나무 껍질 갔을 때 나왔던 벌레?

지아: 그때 물에 내려가서도 놀았잖아.

지환: 저 사진 감자 캐러 갔을 때다!

희찬: 물총놀이다!

민서: 옥상에서 수영복입고 물총놀이 했었는데 진짜 재미있었어.

민서: 완전 재미있는 것들 많았어요!

나연: 가족하고 유치원에도 왔었어요.

주원: 오~~~ 다른 반에서 놀이도 했었는데

윤하: 나는 아빠랑 와서 놀이했었어.

하준: 민속의 날에 동생들이랑 강강술래 하면서 달한테 소원 빌었을 때예요.



🍎 우리가 뽑은 베스트 10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 중에 기억에 남는 일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 우리 반의 베스트 10, 열 가지를 뽑아볼까요?

1. 휴머노이드 ‘하늘이’ 만난 날
2. 물총놀이 했던 시간
3. 숲 체험 갔던 날
4. 체육시간
5. 민속의 날, 달에게 소원빌기
6. 어린이날, 에어바운스 타기
7. 엄마 아빠와 유치원 와서 놀이 한 날
8. 강당에서 바이킹, 롤러코스터 탔을 때
9. 친구들이랑 놀았던 시간들(교실, 바깥놀이)
10. 견학으로 감자를 캐러 갔던 날

사진을 보면서 그동안 함께 했던 시간을 다시 회상해봅니다. 공유의 시간은 잠시 잊고 있었던 추억을 생각나게 하고 당시의 경험담을 즐겁게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추억의 시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 나의 모습 되돌아보기

유치원과 잘 헤어지는 방법의 마지막 과정은 내 기억속의 유치원과 지금 우리 반에서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현재 모습을 반추해보는 것입니다.

다섯 살때의 모습과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일곱 살의 나의 모습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유치원에 처음 왔던 다섯 살, 나의 모습부터 지금까지 나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사진들을 보며 “나 이때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혼자서 할 수 있던 것들이 조금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나 많아.”

와 같이 성장한 나의 모습들을 발견해 봅니다. 직접 나의 모습들을 담아볼 수 있도록 유아들이 사진을 선택하고 앨범 형태로 편집하여 흔적을 남겨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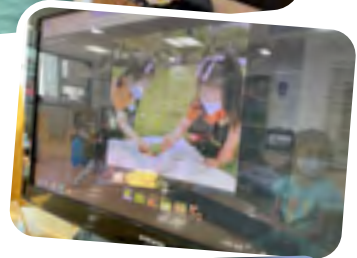


다섯 살부터 일곱 살까지의 시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윤하 : 다섯 살 때 내 생일파티 했던거예요.

내 생일이 3월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서
제일 먼저 생일파티를 해요.

내가 제일 기쁜 날이에요.



윤하 생일이 3월이라 우리가
윤하 생일파티를 제일 먼저 했었죠.

윤하 :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숲 체험하러 갔을 때예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랑 좋아하는 곳에 갔었는데.



윤하 : 이 사진은 종이접기 했을 때인데

내가 옛날에 배를 접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잘 접고 아이스크림까지

접을 수 있어요.



윤하의 종이접기 실력이 엄청 늘었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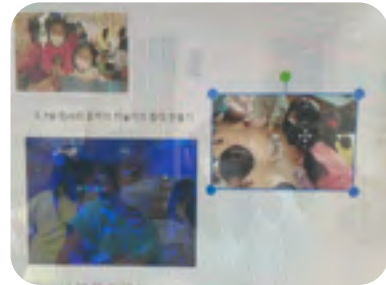
다섯 살 때보다 일곱 살인 지금, 종이로 접을 수 있을 것들이 더 많이 생겨났네요.

윤하 : 지금은 그래서 더 잘할 수 있고 쉬워졌어요.

윤하 : 이거는 여섯 살 마지막 날에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너희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라고
적혀 있잖아요.

마지막이라 슬펐었는데 일곱 살 때 다시
같은 반 되는 친구들이 있어서 괜찮았어요.



다섯 살 때부터 일곱 살까지의 사진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천천히 되돌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직접 사진을 선택하여 추억할 수 있는 앨범을 만들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선택한 사진은 유아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나의 폴더에 모아주고, 앨범은 bookcreator 사이트를 소개하여 유아가 남기고 싶은 사진과 글을 유아가 직접 적어 자유롭게 배치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나만의 추억 담아보기







하준이와 함께 재미있는 블록놀이



빛이 나는 빛놀이실에서



여린이 날, 신나는 도매노



아빠와 함께 내가 좋아하는 3D편 해보기



계양산에 물고기
잡으러 가는길

은놀이날 아빠와 함께 외계인 얼굴 만들기



유치원을 떠나면서..

"놀이시간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친구들과 같이 하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매일 매일 유치원이 나를 신나게 만들어줬어요"
"유치원이 보고싶을거예요"

"나를 즐겁게 해줘서 고마워 유치원아, 잘 있어"

유아들과 헤어짐의 의미를 나누고 잘 헤어지는 방법들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유아들은 헤어진다는 것은 슬프고 속상한 일이지만 시간이 흐르고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마주하게 되면 괜찮아진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듯 하였습니다. 내가 생활했던 유치원, 우리 반, 그리고 나의 다섯 살부터 일곱 살까지 되돌아보는 경험은 유아들에게 추억을 회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내가 해 보았던 것, 친구와의 관계, 나의 성장 등의 흔적들을 살펴보면 서 유치원에서 지내는 시간 동안 나의 변화된 모습들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성장을 직접 느끼고 말할 수 있는 경험은 유아가 또 다른 헤어짐을 마주할 때 유아들이 또 다른 헤어짐을 마주할 때 건강한 이별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즐거움이 찾아오면 슬픔은 잠시 잊게 된다는 유아들의 이야기처럼 유치원과의 아쉬운 헤어짐을 하고 나면 초등학교라는 또 다른 만남에 대한 기대감과 즐거움이 유아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치원과 인사를 나누며, 고마웠어. 유치원아 덕분에 행복했어!



네 번째 이음 이야기

유아가 기대하는 앞으로의 삶 :
궁금한 초등학교, 미리 만나봐요

01 초등학교, 어떤 곳일까요?

- 어느덧 다가온 유치원 졸업과 초등학교 입학

02 초등학교, 더 궁금해졌어요.

-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다양한 방법

- 이음 살펴보기 : 편지로 질문하고 답하며 먼 곳에서 만난 우리

- 이음 살펴보기 : 실시간 쌍방향으로 직접 만나게 된 우리



01

초등학교, 어떤 곳일까요?



“어느덧 다가온 유치원 졸업과 초등학교 입학”



5세 학급 유아들과 함께 일 년을 생활하며 어느덧 유치원 졸업과 초등학교 입학 앞둔 시기가 되었습니다. 유아들은 집에서도 부모님과 초등학교 이야기를 하곤 했었는지 가끔 교사에게 초등학교에 대한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하

기도 합니다. 때로는 친구들과 놀이하다가, “우리는 00초등학교에 간대.” “우리 형은 00초등학교에 다녀. 나도 거기 갈거야.” 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유아들이 떠올리는 초등학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집니다.
초등학교의 실제 모습을 소개해주기 전에, 먼저 유아들의 상상과 생각 속
의 초등학교를 만나보면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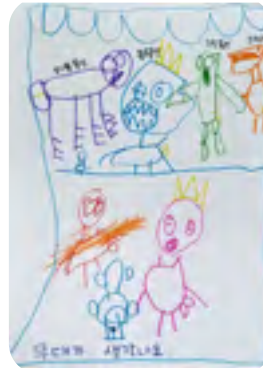
+ 이음 살펴보기 + 상상 그림으로 만난 초등학교의 모습



그림을 들여다보니, 저마다 다르게 담긴 초등학교의 모습이 재미있었습니다. 또한 ‘유아들이 초등학교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개별 유아들의 생각과 마음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유치원에 있는 강당도
있었으면.. 자전거도
있었으면 좋겠다.”



“무대가
생각나요.
무대에서 인형극
보는 모습이에요.”



“초등학교 운동장은
아주 커.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싶어요.”

유아들은 그림을 그리면서 옆에 앉은 친구들의 그림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며 활발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그림에 반영하거나, 그림이 점점 더 구체화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생각을 말하고 표현하는 유아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준: 학교에는 계단도 많아야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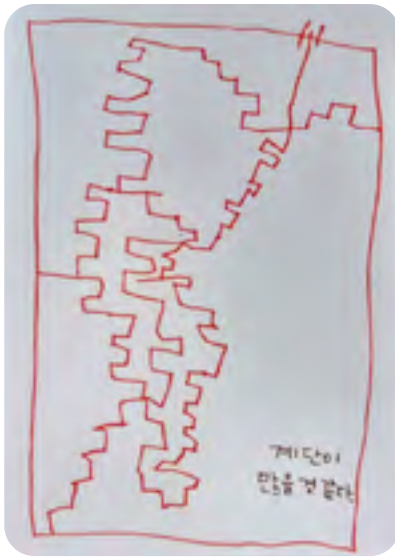
재서: 맞아. 계단을 엄청 많이 그려야 돼.

교실도 더 많아.

우리 누나 6학년이야.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해.





“계단이
많은 것 같아.”

“난 1학년 1반 되고 싶어.
너랑 같은 반 되고 싶다.”

🍷 상상 그림을 그리며 초등학교가 더 궁금해진 유아들

운동장 그림을 그리던 한 유아는 무엇이 궁금해졌는지 큰 목소리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한 유아의 질문을 들은 친구는 나름대로 대답을 해주기도 하고, 자신도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초등학교가 더 궁금해진 친구들!



“초등학교에서도
바깥놀이를 하나요?”

유아들이 궁금한 초등학교 생활 ‘우리들의 질문’

- 수업 시간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나요?
- 놀이 시간도 있나요?
- 쉬는 시간에는 놀아도 되나요?
- 화장실은 멀리 있나요? 무섭지는 않나요?
- 축구나 운동을 얼마큼 하나요?
- 바깥놀이도 있나요?
- 급식은 어디에서 먹어요?
- 공부를 왜 하는 건가요?
- 학교는 왜 이렇게 큰가요?
- 유치원 친구랑 같은 반이 될 수 있나요?

02

초등학교, 더 궁금해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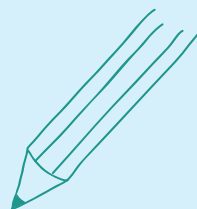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다양한 방법”



초등학생 형님들!
초등학교가 궁금해요!



유치원 동생들!
초등학교에 오는 것을 환영해요!



초등학교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궁금한 것들이 더 많아진 유아들을 위해 초등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기회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생이 유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고민하던 중, 유·초 교사 학습공동체에 계신 S초등학교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치원과 S초등학교는 서로 먼 곳에 있었지만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였고, 마침내 유아들의 궁금함을 편지에 담아 초등학교로 전달해보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주고 받은 이후에는 실시간 쌍방향으로도 직접 만나 고마움을 전해볼 수 있었습니다.

+ 이음 살펴보기 + 편지로 질문하고 답하며 만난 우리

초등학교에 대해 궁금한 것을 편지로 질문해보아요.

교사는 유아들이 초등학교에 대해 궁금해진 것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보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초등학교 형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질문 종이를 큰 벽보에 붙여보기로 하였습니다. (유아들에게 벽보란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 ‘편지’로 소개하였음)



유아들은 초등학교 생활에 대한 궁금한 질문들을 나뭇잎 모양의 메모지에 개별적으로 적은후 나무모양의 게시판에 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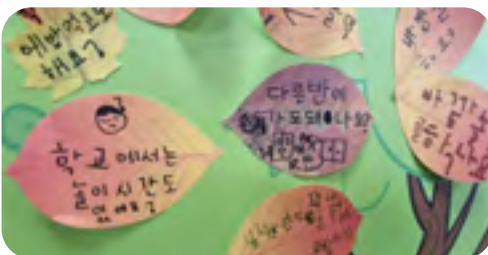


언니, 오빠들이 대답해줘요?”, “이렇게 큰 편지를 어떻게 초등학교로 보낼 수 있어요?” 등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아마도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들의 생각이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흥미를 갖게 된 것 같았습니다. 유치원 교실에 벽보를 한동안 붙여놓았는데, 친구들은 어떤 것을 적었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유아, 궁금한 것이 또 생각나서 “다른 것도 물어봐도 돼요?”라고 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아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교사는 유아들이 모르는 글자를 빈 종이에 적어주거나, 유아들의 생각에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며 함께 대화를 나누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의 생각을 메모지에 적어 붙이는 유아들



유아들의 다양한 질문들

🍁 제목을 쓰고, 배경도 꾸며줘요.

또 어떤 유아들은 나무 편지의 제목을 지어 글자를 붙여주고, 예쁜 그림 스티커를 만들어 벽보를 열심히 꾸며줍니다.



“우리는 그림 스티커를 만들어서
나무 옆을 꾸미자.
강아지들이 나무 밑에서
놀고 있다고 하자!”

“여기엔 제목을 써주자!
‘궁금해요 초등학교’ 어때요?
선생님 ‘학교’ 글자는
어떻게 쓰면 돼요?”



🍎 우리들의 궁금함을 담은 나무 편지가 초등학교로 보내졌어요.



“00유치원 친구들이
00초등학교 형님들에게!”

🍁 나무 편지는 초등학교에 도착했어요.

“유치원 동생들아, 초등학교에 대해서 알려줄게!”

경기도 부천시 S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의 이야기

‘유치원 동생들이 초등학생들에게 초등학교에 대해 직접 질문해 보고 싶다니!!’ 사실 고학년인 우리 반 학생들이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어린 동생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우리 반 학생들의 반응이 궁금했고, 유치원 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뿌듯할 것 같았다. 특히 형제 경험이 많이 부족한 요즘의 학생들에게 새롭고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기도 하였다.

학생들에게 활동을 소개하자, 예상 밖의 많은 관심을 보였고, 마침내 도착한 택배를 함께 열어보았다. 학생들은 이렇게 어린 유아들에게 편지를 받아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자체에도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았다. 뽀뽀 귀여운 글씨와, 솔직함이 담긴 질문들에 어떤 말을 해줄까 진지하게 고민하며 쪽지를 쓰기 시작하였다. 질문을 보니 비슷한 것들도 많았다.

(바깥놀이나 운동, 급식실, 쉬는 시간, 놀이 시간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다.)



“음.. 바깥놀이에 대한 질문이 많네?
우리 모둠에서 답장을 써주자”



“이렇게 써주면 유치원 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학생들은 유치원 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고민하면서 답변을 적기도 하고. 또 동생들처럼 ‘초등학교를 환영해요’라며 제목도 지어주었다. 나무 주변에는 ‘화이팅!’, ‘유치원 친구들 사랑해요’, ‘입학을 축하해 유치원 친구들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되길!’ 등 응원의 말을 적어주기도 하였다.

유치원 동생들에게 받은 나무 편지와, 우리반 학생들의 답장 나무를 다시 유치원으로 보내었다. 우리의 이야기가 잘 전해지기를!

🌳 응원과 사랑을 듬뿍 담아, 다시 유치원에 전해진 나무 편지.

“저의 질문에 답장이 왔을까요?”



초등학교 형님들의 편지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유아는 자신의 질문에 어떤 답글이 있을지 궁금해 하며, 또 긴과 설레는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교사는 유아들이 궁금해하는 쪽지의 내용을 읽어주기도 하고, 유아들과 함께 장소를 정해 벽보를 게시해 주었습니다.



유아들의 질문 나무



초등학생들의 답장 나무

교사는 유아들이 초등학생 형님들의 답장에 관심을 갖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문득 생각해보게 됩니다. ‘편지를 전하고, 답장을 받는 동안의 궁금함, 기다림이라는 과정이 유아와 초등학생 모두에게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었구나!’

또 유아들이 질문했을 때 교사가 즉시 답해줄 수 있었지만, 초등학생들의 시선에서 적은 솔직하고 재미있는 답변들을 보니, 유아들에게 새롭고 즐거운 기억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 이음 살펴보기 + 실시간 쌍방향으로 직접 만나본 우리



초등학교 형님들에게, 고마움을 전해요.

나무에 가득찬 답장들을 보며 유아들은 “우와~~”, “형님들 정말 최고예요!”라며 감동을 표현해 줍니다. 어떤 유아는 “우리도 형님들한테 선물을 보내줘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동의 기분과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떠올리다가, 초등학교 선생님과 협의 후 실시간 쌍방향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고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서로에게 더 궁금한 것을 묻고 답해보았습니다. 또 유아들은 요즘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 선물을, 초등학교 형님들은 컵타 연주 선물을 들려주며 서로 고맙고 반가운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잠깐의 실시간 쌍방향 만남을 마치고 나서 유아들은 초등학교 형님들의 모습과 교실, 초등학교 선생님을 만난 느낌을 친구들과 서로 이야기나누기도 하고 다음에도 또 만날 수 있는지 기대감을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왠지 유아들의 초등학교에 대한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이 한 뼘 더 자라게 된 것 같아 교사도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유아들이 앞으로도 유치원 졸업, 초등학교 입학を 조금 더 즐겁고 궁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개정 누리과정에 기반한 유·보, 유·초 이음교육 지원 자료(유아놀이와 활동 자료) 유아의 시선으로 이어가는 놀이와 활동

- **연구책임자** 김호 교수(경인교육대학교)
 - **공동연구원** 김연진 소장(유아교육디자인연구소)
김택수 교사(인천백석초등학교)
김현경 강사(경인교육대학교)
노현애 원감(서울신우유치원)
서은총 원장(대전푸른샘어린이집)
이성주 교수(호원대학교)
장원호 교사(성주초등학교)
장혜진 교수(대구대학교)
최은영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 **연구보조원** 김민정 대학원생(중앙대학교)
이민진 조교(경인교육대학교)
이하영 교사(배곧누리유치원)
장슬아 교사(조남유치원)
조단비 교사(청심유치원)
 - **연구협력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 **삽화** 김웅 교사(하늘빛초등학교)
 - **동영상** 안세연 교사(서울석촌초등학교)
이상권 교사(인천발산초등학교)
정혜란 교사(서울행현초등학교) (이상 가나다순)
-
- **펴낸날** 2022년 12월 31일
 - **펴낸곳** 교육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www.moe.go.kr
 - **제작** 도서출판 공동체(031)814-3000(대표)
-

이 책을 무단전재 또는 복제 행위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발간등록번호 11-1342000-000942-01
ISBN 979-11-92629-09-4